

푸른 옷 갈아입고 굽이도는 봄산

백두대간 속으로

(15)

큰재 → 봉황산 → 갈령



◇진달래 꽃밭을 걷는 백두대간의 봄. 흔하면 귀함을 잃는다는 말도, 어디서나 피어나 봄을 장엄하는 이 꽃 앞에서는 헛말이 되고 만다.

흐드러진 진달래 '잠목은 없다' 가르침

못재엔 후백제 견훤이 목욕했다던 전설

선생이 '잠목은 없다'고 말한 것처럼 '잠목은 없다'는 사실은.

이렇듯 진달래꽃 흐드러지게 피워올리며 한껏 허리를 낮춘 백두대간은 다시 조금씩 키를 높이며 백학산(615m)으로 발걸음을 이끈다. 이곳에서부터 다시 내리막길을 이룬다가 상주시 모서면 석산리와 대포리를 넘나드는 고개길(지기재) 하나 내어 주고 나서 신의태에 이르기까지는 아예 완곡 열구리에 눈발을 끼고 간다. 지기재에서부터 신의태까지는 위험위험 걸어도 두어 시간이면 족하다.

신의태에서는 잠시 숨을 고르며 이곳 또한 역사의 현장임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비록 해발 280여 미터에 불과하지만 금강과 낙동강을 가르는 분수령인 이 고개는, 임진왜란 이전에는 신은현(新隱峴)으로 불리었으나 임진왜란 때 김준신이 이 고개에서 의병을 모은 전승을 세우고 임진년 4월 25일 순절한 후부터 신의태로 불린다 한다. 일제 강점기 때는 이 고개 동쪽의 동리 이름을 따 '어산재'로도 불리었으나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재 이름을 되찾았다.

피랑 없는 바다를 생각할 수 없듯 굽이치며 휘돌지 않는 산 또한 상상할 수 없는 법. 비록 추풍령에서부터 속리산에 이르기까지의 산세가 미약하기는 하나 그레도 산은 산. 신의태에서 무지개산을 거쳐 은지마산을 지나 화령에 이르기까지는 활 모양으로 휘어져 그 옥한 봉산의 정취를 자아낸다.

화령에서 다시 한숨을 돌린다. 상주시 화서면과 의서면을 잇는 이 고개 또한 300미터 남짓으로 그리 높지는 않다. 택리지에서도 이 고개에 대하여 말하기를 "속리산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산줄기가 화령과 추풍령이 되었는데, 시내와 산의 경치가 그윽하다. 모두 낮고 평평하여 살기에 알맞으나 산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곳 지형에 대한 옛사람들의 지리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표현이라 하겠다. 또한 이 지역을 일러 중화(中化)지역이라 일컫는데, 이는 옛적 상주쪽에 속하던 증모현(지금의 상주시 모서면, 모서면)과 화령현(지금의 상주시 화서, 화북, 화동, 화남)을 이룬 이 일대의 지역을 통칭하는 말이다.

대부분의 백두대간이 도의 경계를 이

루는 것과 달리 이 곳은 아예 대간의 동서를 경상도(상주시)가 차지하고 있다. 이는 삼국이 각축을 벌이며 국경을 뒤흔구던 역사의 반영이기도 한데, 우뚝 솟은 백두대간이 천연의 국경 노릇을 하며 우리네 문화와 풍토를 가름하였음을 반증하기도 한다. 역설적이게도, 지역과 지역을 나누는 요새같은 산은 평화의 중재자가 되고, 지역과 지역을 이웃하게 만드는 낮은 산은 오히려 한번 백두대간의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살필 수 있었다. 이렇듯 백두대간의 고개길은 눈앞이나 위치에서 따라 역사적, 지리적 의미를 달리하지 않다는 사실을 가늠할 수 있다. 대간 동서이로서의 지위만큼은 동등하다.

화령에서는 봉황산(740.8m)이 그리 멀지 않다. 너머로 속리산을 빼고는 이 일대에서, 가장 높을 뿐 아니라, 군더더기 없이 봉긋한 재배가 봉황이라는 이름에 참으로 잘 어울리는 산이다. 화령을 넘어 화서로 향하는 포장도로를 걷는 길에서, 화령을 가로질러 숲의마을을 벗어나면서 서서히 높이를 올리면 산발감 지소소가 있는 봉황산의 동쪽 봉우리에 이른다. 이곳에서 다시 급하게 아래로 내려가다 상구진 다음, 왼쪽 기슭을 걸게 휘돌다가 정상 아래부분에서 왼쪽으로 급하게 역은 다음부터는 급한 경사가 꼭대기까지 이어진다. 금강으로 흘

러드는 송천의 발원지이기도 한 이 산은, 화령의 진산답게 화서면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속리산 천황봉도 가늠이 될 만큼 조망도 빼어나다.

봉황산 꼭 지나서 암봉을 돌고 나면 공안길을 산책하는 듯한 편안한 걸음으로 비재까지 내려갈 수 있다. 지금은 비재라고 부르지만, 나는 새의 형국과 같다 하여 비조령(飛鳥嶺)으로 불렀다는 이 고개에서부터는 급한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이어간다. 특히 못재 직전의 가파른 암봉은 발걸음의 감각을 찌릿하게 하며 산행의 즐거움을 배가시킨다.

못재, 이름처럼 항상 물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습지를 이루고 있는 이곳에는, 후백제를 세운 견훤이 얹힌 전설이 전한다. 못재의 맞은편에 솟은 대궐터 산에 성을 쌓은 견훤이 이곳 못재에서 목욕을 하여 힘을 얻어 세력을 넓혀 갔다. 이를 안 황충이 못재 소금을 풀어 견훤의 힘을 꺾었다는 것이다. 이는, 광주의 한 처녀가 지렁이와 정을 통하여 사내아이를 낳았는데, 나이 열다섯 살이 되자 스스로 견훤이라 일컬었다는 삼국유사의 기이전에 전하는 얘기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다.

못재에서 그 옛날 견훤과 함께 목욕을 하는 상상을 하며 조금만 나아가면 이내 속리산의 동남쪽 자락에 닿는다. 올라서면 형제봉, 내려서면 갈령이다. 다음 차례에는 갈령에서부터 속리산 문장대를 넘을 예정이다.

글=윤재혁 기자
사진=손재식(사진작가)

진달래 꽃그늘을 드리웠던 자리엔 어느새 녹음이 짙다. 죽은 듯 앙상한 가지 위로 기적처럼 붉은 빛을 토해내던 그 굵은 봄빛이 아직도 화인처럼 기억에 생생한데, 성큼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비람이 속살까지 푸른 물을 들

이고 나면 소나무는 화달하듯 노

오란 꽃가루를 실어 보내고, 별

안간 빗방울이 들기라도 하면 기

단런 듯 참나무는 '후두둑' 소리

로 정단을 맞춘다. 그야말로 상

생과 조화의 극치다. 지금 우리

의 산하는 운운으로 그것을 가르

치고 있다.

◇백두대간의 모든 고개길은 눈이와 관계없이 분수령의 구실만큼은 분명히 한다. 눈이나 눈이나 백두대간의 당당한 동승인 것이다.



◇백두대간의 모든 고개길은 눈이와 관계없이 분수령의 구실만큼은 분명히 한다. 눈이나 눈이나 백두대간의 당당한 동승인 것이다.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용내닐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연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운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무로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5300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층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不老 仙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헌박사)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 산삼은 기생충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이완장애, 나방,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 신경의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 방사선병, 조혈장애, 산후전경련,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 정력강화(조부루,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 눈이 맑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 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산된다.
-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제 효험이 있다.

용감하유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善行하시는 스님
저저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을
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
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龍隱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코자
하오니 부담없이 踴躍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산삼(자연산삼 150년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산삼(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서울 「장뇌산삼」 사업부

산삼장뇌란?
산삼은 전후, 지중, 인공, 장뇌까지 구분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새를 채취한 후 길은 산에 뿌려 자연산으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결코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